

"2025 인천 향운노조 온열질환 예방캠페인"



2025년 8월 14일,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는 향운노조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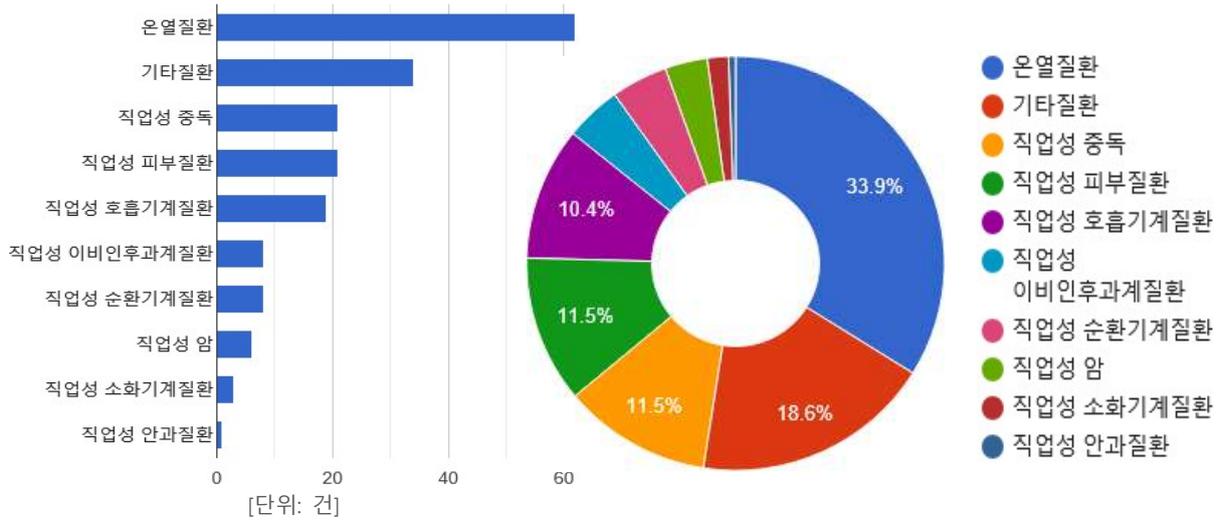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폭염 속에서 야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향운노조 조합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온열질환의 주요 증상과 응급 대처법, 예방 수칙에 대한 교육과 함께 물·염분 보충, 휴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직업병 안심센터 의료진과 함께 쿨티슈, 목에 매는 선풍기, 팔토시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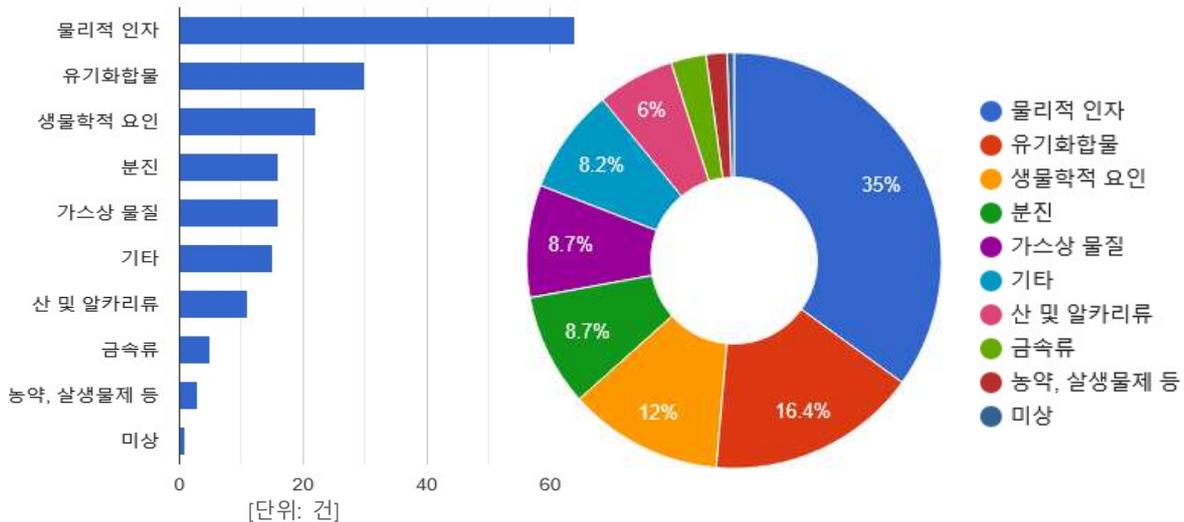
앞으로도 직업병 안심센터는 다양한 현장 근로자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맞춤형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직업병 사례 통계 -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2025년 07월 (2025.07.01.~2025.07.31.)

<질환별>



<유해요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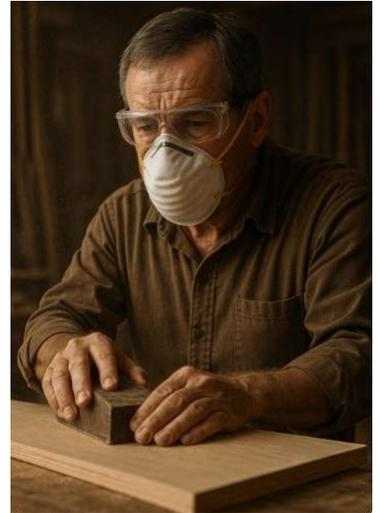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에 총 183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질환별로 분류하면 온열질환 62건, 기타질환 34건, 직업성 중독 21건, 직업성 피부질환 21건, 직업성 호흡기계질환 19건, 직업성 순환기계질환 8건, 직업성 이비인후과계질환 8건, 직업성 암 6건, 직업성 소화기계질환 3건, 직업성 안과질환 1건 등이었습니다. 추정 유해요인별로 분류하면 물리적 인자 64건, 유기화합물 30건, 생물학적 요인 22건, 분진 16건, 가스상 물질 16건, 기타 15건, 산 및 알카리류 11건, 금속류 5건, 농약, 살생물제 등 3건, 미상 1건 등이었습니다.

직업병 사례

“목공작업자에서 발생한 후각장애 사례”

50대 남성으로, 1개월 전부터 발생한 후각 이상과 미각 이상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다. CT 검사 상 비중격 만곡 외에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장목수로 15년 근무하였으며,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다. 1개월 전 국산 합판을 사용하다가 중국산으로 변경되며 증상이 시작된 것이 증상발생의 원인일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스테로이드 등 약물치료 진행하며 외래 추적 중이다.



내장목수는 건축물 내부의 목재 구조물이나 가구 등을 제작 및 설치하는 직종이다. 주된 작업 과정에는 목재 절단, 가공, 조립, 마감 등이 포함된다. 먼저, 원목이나 합판을 필요에 맞게 절단한 뒤, 구조물의 형태에 맞게 가공한다. 이후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결합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연마 작업을 거쳐 마감을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적, 물리적 노출 요인이 발생한다.

목재 절단 및 연마 과정에서 다량의 목재 분진이 발생한다. 목재 분진은 크기가 작아 호흡기를 통해 쉽게 침투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만성 비염이나 기관지염뿐만 아니라 후각 신경에 손상을 일으켜 후각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열대산 목재나 방부제·접착제가 포함된 합판의 경우,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나 페놀수지, 기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이 방출되어 후각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목재 표면을 다듬거나 도색, 도장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페인트, 니스, 락카, 본드 등의 화학물질은 자극성 냄새를 발생시키며, 이 증기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후각세포의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 작업장에서 이러한 화학물질을 반복적으로 흡입하면 급성적으로는 점막 자극과 후각 둔화를, 만성적으로는 지속적인 후각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내장목수의 작업환경에서는 분진과 화학물질 노출이 빈번히 발생하며, 적절한 국소 배기장치나 환기 시설, 보호구(방진마스크, 활성탄 마스크 등)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후각 기능 저하 및 장기적인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예방 및 관리 대책

(1) 개인 보호 조치

분진 발생이 많은 작업 시 방진마스크 또는 활성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작업 후에는 세면, 샤워, 양치 등을 통해 분진 및 화학물질 잔여물을 제거하고, 작업복은 별도로 세탁·보관하여 생활 공간으로의 오염 확산을 방지한다.

(2) 건강 모니터링 및 조기 진단

후각장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폐활량 검사, CT 검사 등)을 실시한다. 만성 코막힘, 비염 증상, 냄새 인지 저하를 호소하는 근로자는 조기 검진을 통해 후각 신경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한다.

(3) 작업 환경 개선

국소배기장치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분진과 유해 화학물질 농도를 낮춘다. 건식 연마보다는 습식 가공을 활용하여 분진 발생을 줄이고, 화학물질 사용 시에는 환기 후 충분히 건조·배출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작업장은 청결하게 유지하며, 분진이 오래 체류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분뇨처리장 근무 중 발생한 메탄·황화수소 가스 흡입 사고”

40대 남성으로, 여름철 분뇨처리장에서 근무하던 중 약 1~2 분간 가스를 흡입한 직후 어지럼증과 의식소실을 동반한 실신이 발생하였다. 함께 작업하던 동료는 심정지가 발생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환자 본인도 급성 가스 중독 및 중추신경계 영향 가능성으로 119를 통해 본원 응급실로 이송 후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가 흡입한 가스는 작업 환경 특성상 메탄(CH₄)과 황화수소(H₂S)로 추정되었다. 입원 당시 환자는 명확한 기억장애나 섬망 증상은 없었으나, 일시적인 지남력 저하와 혼돈 증상이 있어 신경학적 후유증 가능성에 대비한 감시 및 치료가 이루어졌다. 또한 심전도와 심장효소 검사를 통해 심근허혈이나 부정맥 가능성을 감시하였으며, 필요 시 심초음파 검사 및 고압산소치료가 고려되었다.

급성 가스 중독은 밀폐공간에서 발생하기 쉽고, 노출된 가스의 농도와 노출 시간에 따라 무증상에서부터 의식소실, 심정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메탄은 주로 산소 결핍을 통해, 황화수소는 직접적인 독성 작용을 통해 인체에 손상을 준다. 특히 황화수소는 고농도에서 후각을 마비시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치명적 노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방 및 관리 대책

(1) 작업 전 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작업 전, 메탄·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작업을 중지한다.

(2) 환기 및 공학적 관리

국소배기장치 또는 송풍기를 이용해 작업 전·중·후 충분히 환기한다.

(3) 개인보호구 착용

적합성 검사를 마친 공기호흡기(SCBA)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착용 교육과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4) 응급대응 체계 구축

밀폐공간 작업 시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감시자 배치 및 비상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구명 장비를 준비한다.

직업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직업병엔 도너리(Don't worry)가 같이 합니다.



직업병 안심센터

대상

업무와 관련해 불편한 증상, 질환을 경험한 분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

급성중독

(화학물질 노출 후 발생한 이상 증상 또는 질식, 열사병 등)

호흡기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천식 등)

신경계질환

(말초신경병증, 파킨슨증후군 등)

피부질환

(접촉성 피부염, 백반증 등)

간질환

(독성간염 등)

직업성 암

(폐암, 혈액암, 비인두암, 방광암, 신장암 등)

무엇을 도와주나요?

- 직업성질환 진단, 원인파악
- 직업병 예방 및 환경개선 지원
- 산재요양 필요여부 상담 등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초기 진료비 일부 지원
- 이후 직업성질환 진단 비용 일부 지원 (단, 외상성사고, 근골격계질환, 소음성난청 등은 제외)

문의 ☎ 1588-6798 (전국대표번호)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
인하대병원
☎ 032)890-0843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033)741-0342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아주대학교병원
031)219-5645

경기북부 직업병 안심센터
한양대구리병원
☎ 031)560-2725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www.kodsc.org

